

# 조선어 철자법의 기초 ( 2 )

## 용언위 어간과 토의 결합할 때에 나타나는 음운 교체 (音韻交替)

용언의 어간이 각종의 모와 결합될 때 나타나는 어간 자음의 음운 교체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모든 교체에 있어 어간 자음을 언제나 같은 받침으로 포기함으로 써 형태부가 고정된다.

이제 어간 자음의 음운 교체와 그 포기법을 보던 다음 같다.

(1) 교체 [ㅂ]—[ㅃ] → 포기 ㅂ

- |      |      |       |
|------|------|-------|
| [꿈다] | [屈指] | [교바]  |
| [꿈고] |      | [교보니] |
| [꿈자] |      | [교바서] |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꿈다	꿈아
꿈고	꿈스리
꿈자	꿈아서

모 포기함으로 써 어간의 형태부 (韻一)가 고정된다.

이제 속하는 것

- |         |       |
|---------|-------|
| 꿈다 (屈), | 집 (家) |
| 꿈 (韻),  | 담 (潭) |

( 2 ) 교체 [ㅁ] - [ㅍ] → 표기 ㅁ

[받다] (受)      [바 다]

[받고]            [바드니]

[받지]            [바다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받다              받아

받고              받드니

받지              받아서

로 표기함으로 써, 어간의 형태부 [받-]가 교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걸다 (捲), 곧다 (直), 굳다 (固)

닫다 (閉), 뜯다 (昇), 묻다 (埋, 染)

믿다 (信), 받다 (受), 얻다 (得)

( 3 ) 교체 [ㄱ] - [ㄱ] → 표기 ㄱ

[막다] (防)      [마가]

[막고]            [마그니]

[막지]            [마가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막다              막아

막고              막드니

막지              막아서

로 표기함으로 써, 어간의 형태부 [막-]가 교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썩다 (腐), 작다 (少), 먹다 (食)

( 4 ) 교체 [ㅂ] - [ㅍ] → 표기 ㅍ

[높다] (滿)	[노파]
[높고]	[노프니]
[높지]	[노파지]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

높다	높아
높고	높으니
높지	높아서

로 표기함으로 써, 어간의 형태부 [높-]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깊다 (報) · 깊다 (深) · 덮다 (蓋)  
 설다 (谷) · 열다 (覆) · 짚다 (杖)

(5) 교체 [ㄷ] — [ㅌ] → 표기 ㅌ

[갈다]	[가라]
[갈고]	[가트니]
[갈지]	[가라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갈다	갈아
갈고	갈으니
갈지	갈아서

로 표기함으로 써, 어간의 형태부 [갈-]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말다 (噴, 任)	얕다 (淺)
붙다 (付)	얕다 (淺)

(6) 교체 [ㄱ] — [ㅋ] → 표기 ㅋ

[깎다] (削)	[깎자]
----------	------

[각고]

[각고니]

[각저]

[각저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각다

각아

각고

각으니

각저

각아시

로 표기함으로 써, 이간의 형례부 (각-) 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각다 (折), 각다 (經)    각다 (釣)

각다 (試), 목다 (取)    목다 (炒)

취다 (混), 취다 (抄)    취다 (編)

( 7 ) 고쳐 [나] → [하] → 표기 [나]

[안따] (袍)

[아나]

[안프]

[아느니]

[안저]

[아나시]

이렇게 발음된다. 이 것을

안다

안아

안고

안으니

안지

안아시

로 표기함으로 써, 형례부 (안-) 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안다 (履)

( 8 ) 고쳐 [ㅁ] → [하] → 표기 [ㅁ]

[삼따]

[사하]

[삼프]

[사하니]

[삼저]

[사하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삼다

사하

심고 삼으니  
쉬지 실연치

로 포기함으로 써, 형태부 (심-) 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급다 (急) 남다 (餘) 갈다 (捲)

(9) 교체 [ㄷ] - [ㄸ] → 포기 ㅈ

[웃다] (笑) [우히]  
[웃고] [우스리]  
[웃지] [우서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웃다] [웃어]  
[웃고] [웃으니]  
[웃지] [웃어서]

로 포기함으로 써, 형태부 (웃-) 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벗다 (脫), 췌다 (拭)

(10) 교체 [ㄷ] - [ㅌ] → 포기 ㅍ

[있다] [이져]  
[있고] [이쁘니]  
[있지] [이져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있단 있어  
있고 있으니  
있지 있어서

로 포기함으로 써, 형태부 (있-) 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갸다 (未來로), 았다 (過去로)  
앗다 (過去로),

(11) 교체 「ㅁ」 - 「ㄴ」 → 표기 ㅁ

[곱다] (姪)	[교와]
[굽다]	[교우니]
[곱고]	[교와서]
[곱네]	[교우면]
[곱네]	[교우시네]
[곱소]	[교우랴]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은

곱다	교와
굽다	교우니
곱고	교와서
곱네	교우면
곱네	교우시네
곱소	교우랴

로 표기함으로 세, 형태는 (ㅁ-) 가 표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 군다 (燒), 던다 (勳), 맹다 (幸)
- 긴다 (補), 툇다 (助), 신다 (易)
- 늪다 (臥), 민다 (僧), 쯤다 (寒)

이 경우의 교체는 (9) 의 교체와 꼭 같다. 즉 "웃다-웃어" 에 있어 [t] - [s] 의 교체를 마찬가지로 "다-교와" 에 있어 [p] - [w] 의 교체를 마찬가지로 "ㅁ" [w] 로 세 표시하는 것이다

조선어에 있어 마찰음인 갈음 또는 발음되지 않는 다름을 앞에서는 동일 조음위치의 과멸음으로 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웃어" 에서는 [s] 로 발음되는 "ㅅ" 자 "웃다" 에서는 [t] 로 발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와" 에서는 [w] 로 발음되는 "ㅁ" 자 "곱다" 에서는 [p] 로 발음되는

것이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

$$s : t = w : p$$

로 된다. “웃다 — 웃어”가 조금도 변격 용언이 아니었다면, 동일한 원리로 “꿈다—꿈다”도 변격용언이 아닌 것이다.

“ㅜ”의 작형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음이 “꿈다—교와” “군다 — 구워”와 같이 [ㅍ]와 [ㄷ]로 교체하여 [우]가 양순 ([ㅍ]와 같이)과 연구개 ([ㄷ]와 같이)에서 관찰되어 조음되는 음이기 때문에 “ㅍ”와 “ㄷ”를 합작하여 “ㅜ”로 만든 것이다.

이 글자의 新製된 발미암아, “ㅍ—ㅜ”의 교체를 소위 변격 용언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모든 교체와 마찬가지로 정적상인 것으로 볼 수 있게되며 또한

꿈다 (屈指) [꿈다] — 꿈아 [교와]

꿈다 (妍) [꿈다] — 꿈아 [교와]

굽다 (屈) [굽다] — 굽어 [구워]

군다 (燒) [군다] — 군어 [구워]

등의 교체가 명확히 구별되게 된다.

(12) 교체 [ㄷ] — [ㅈ] → 표기 ㅈ

[늦다] (晚)                    [느저]

[늦고]                            [느즈니]

[느저]                            [느저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늦다                                늦어

늦고                                늦으니

느저                                느저서

로 표기함으로 세 형태부 (늦—)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갖다 (備), 굶다 (凶), 맞다 (迎. 被打)

뚫다 (掃), 낮다 (低), 맺다 (結)

꾸섯다 (漚), 누다 (漚), 빛다 (腫)  
 잊다 (忘), 적다 (濕), 짓다 (吠)  
 쪼다 (裂), 차다 (壽),

(13) 고리 [ㄷ] — [ㄹ] → 포기 [ㅈ]

[쫄다]	(漚)	[조각]
[쫄고]		[조르니]
[쫄저]		[조차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쫄다	쫄아
쫄고	쫄으니
쫄지	쫄아서

로 포기함으로 써, 형태부 (쫄-)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쫄다 (漚(從)),

(14) 고리 [ㄷ] — [ㅈ] → 포기 △

[걷다]	[거러]
[걷고]	[거르니]
[걷저]	[거러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걷다	걸어
걷고	걸으니
걷지	걸어서

로 포기함으로 써, 형태부 (걷-)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계달다 (蹶), 김다 (汎), 다달다 (臨)  
 걸 (步), 놓다 (焦), 등다 (聽)  
 걸다 (蹶), 달다 (走), 땡다 (問)



분다 (增) 싯다 (載), 일컫다 (稱)

이 교재를 살펴볼 때 “△” 한 자로써 표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제작된 “△” 자의 음가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의가 많으나, 가장 근거가 되는 “훈민정음”에

△ 半曲잡 如 穰字初發聲

이라 명시되어 있는 바와 함께 본래 중국의 風聲의 한자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니 이 음은 어음학적으로는 유성 설음 마찰음 [ʒ]이다. 오늘날 日語의 한'자음을 중국 선문자에서 “ㄗ”로 표기하는 바와 같이 모음 사이에서는 [ʒ]에 비슷하게, 들린다. 이 “△” 자가 모음 사이에서는 [ʒ], 무성자음 앞에서는, 다른 마찰음과 마찰가자음, 대파의 “ㄷ”로 발음되는 것은

大同江……其一出 自 楊德縣 北 文書 그 음산 그 음산

(통비어집가 권1, 39)

에서 “그 음산” 이 (글음산)으로 발음되었을 때

호뜻 ㅎ뜻 (키푸리) (10)  
호을 ㅎ을 (아 비) (10)

의 음운 변화의 예를 들므로 저도 증시할 수 있다.

△자를 부활시켰으므로 말미암아 “=ㄷ”의 모체문 소위 권력용언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모든 조색과 같이 청상치음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15) 어 조색 [ㄷ] → [ㄷ] → 표기 ㄷ

[일어] (無) [일어]  
[일고] [일스니]  
[일정] 일서계

이렇게 발음된다. 이 것을  
일다 일어

없고

없으나

없지

없어서

로 포가 함으로 써, 형태부 (없-) 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가 없다 (無)

시름없다 (愁脫)

루질없다 (沒)

(16) 요해 [ㅂ] → [ㅃ] → 포가 태

[밭다]

[밭바]

[밭고]

[밭르니]

[밭지]

[밭아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밭다

밭아

밭고

밭르니

밭지

밭아서

로 포기함으로 써, 형태부 (밭-) 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얕다 (廣)

얕다 (短)

얕다 (薄)

얕다 (薄)

(17) 요해 [ㅍ] → [ㅑ] → 포기 태

[을다]

[을피]

[을고]

[을르니]

[을지]

[을피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을다

을어

을고

을르니

을지

을어서

로 포기함으로 써, 형태부 (을-) 가 고정된다.

이기에 속하는 것  
읽다 (詠)

(18) 교체 [ㄱ] - [ㄱ] → 기포 ㄱ

[익다]	[일거]
[익고]	[일그나]
[익지]	[일거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읽다	읽어
익고	익으십
읽지	읽어서

로 포기함으로 써, 형체부 (읽-) 가 고정된다.

이기에 속하는 것

굵다 (太), 늙다 (老), 맑다 (淸)  
 굵다 (積), 밝다 (明), 붉다 (淡)  
 붉다 (赤), 얼다 (殘痕), 읽다 (讀)

(19) 교체 [ㄷ] - [ㄷ] → 포기 ㄷ

[할다]	(話)	[할라]
[할고]		[할르나]
[할지]		[할라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할다	할아
할고	할르나
할지	할아서

로 포기함으로 써, 형체부 (할-) 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굵다 (挾拔), 齶다 (挾拔)

(20) 교체 [ㄴ] - [ㄴ] → 포기 ㄴ

[올라]	[오마]
[올로]	[오르니]
[올치]	[우마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올라 올라  
 올고 올으니  
 올지 올라서

모 포기함으로 써, 형태부 (올-) 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끓다 (未滿),	끓다 (飽),	끓다 (沸)
팠다 (耗),	팠다 (穿),	팠다 (耗米)
살다 (賸),	살다 (病),	잃다 (失)

(21) 모리 [ㄹ] ([ㄹ]) - [리] → 포기 리

[올라]	[살라]
[올로]	[살르니]
[올치]	[살마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살라 살라  
 살고 살으니  
 살지 살마서

모 포기함으로 써, 형태부 (살-) 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끓다 (膿),	끓다 (飢),	끓다 (儼)
올다 (移),	올다 (少),	

(22) 고제 [ㄱ] ([ㄱ]) - [기] → 포기 기

[기]	[안주]
[안고]	[안르니]

〔안거〕

〔안자서〕

어떻게 발음된다.

이것을

안다

안아

안고

안으니

안지

안아서

로 포기함으로 써, 형태부 (안-) 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거엄파(撤)

없다(假止)

(28) 표제 [ㄴ] (〔ㄴ〕) - [ㄴ] - 표기 ㄴ

〔만단〕

〔마나〕

〔만코〕

〔마노니〕

〔만치〕

〔마나서〕

어떻게 발음된다.

이것을

만단

만아

만고

만으니

만치

만아서

로 포기 함으로 써, 형태부 (만-) 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좋다(批), 괜찮다(無妨) 언좋다(不好)

굵다(絶), 귀찮다(厭苦)

하찮다(不大), 잠잠다(儼)

(29) 표제 [ㅎ] - ㅎ - 표기 ㅎ

〔조라〕 (好)

〔조아〕

〔조코〕

〔조이니〕

〔조차〕

〔조아서〕

어떻게 발음된다.

이것을

좋다

좋아

종교

종으니

종지

종아서

로 포기함으로 써, 형태부 (종-) 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지영 (照), 자그맣다 (小), 쌓다 (積)

남다 (盈), 좋다 (好), 털다 (拂)

기다랗다 (長), 하얗다 (白),

놓다 (放), 닿다 (觸),

닿다 (接), 빻다 (碎),

(25) 교제 [교] - 票 => 표기 〇

[지다]

[지어]

[지표]

[지니]

[지자]

[지어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장다

장어

장고

장니

장자

장어서

로 포기함으로 써, 형태부 (장-) 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긋다 (劃), 남다 (瘥, 儻), 붓다 (注)

일다 (續), 장다 (紡), 쌓다 (攪)

이 교제부 반칙과 “한 자표 써 표시하는 여유는 다음과 같다. 훈민정음 당시 제작의 “자외 음가가 후두와 발음 (신문폐쇄?) 씬은 오늘날 논의와 여지가 없으며 한 “와 같이 후두음이 가담으로 유성음 사이에서는 북음이 되며, 무성자음의 앞에서는 ㅎ+기=ㅋ ㅎ+다=ㅋ ㅎ+지=ㅈ 이므로

장고 [지표], 장다 [지다], 장자 [지자]로 발음되도록

찾은 당연하므로 “〇” 자를 부활시키므로 알미암나, ㅎ

~O 의 교체를 소위 변격용언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모든 교체와 같이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5) 교체 [ㄹ] - ㄹ - 표기 근

[묻다]	[부니]
[묻고]	[부비니다]
[묻자]	[부지니]
[묻어]	[부오]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묻다	부니
묻고	부비니다
묻자	부지니
묻어	부오

로 표기함으로써, 형태부 (불-) 가 고정된다.

이해 속하는 것.

갈다 (耕), 갈다 (耕, 肥灰), 갈다 (長),  
 날다 (飛), 놀다 (希, 遊), 달다 (甘, 懸, 豎), 물다  
 (吮) 멀다 (遠), 물다 (咬) 밀다 (推), 발다 (儲), 설  
 다 (生煤), 갈다 (細), 질 (泥)

이 교체를 보면 (14) 의2

물다, 물고, 물어

에 대하여

부다, 부비니다, 부지다, 부오

로 되어 [부오]이 [ㄹ, ㅂ, ㅅ; 오] 앞에서는 반드시 폭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곳에 받침으로 쓰이는 "ㄹ" 자의 음가가 다른 "ㄹ" 자와는 다른 까닭을 알 수 있다. 즉

"불" (火) 은 動詞 "나나" (出) 앞에서도

【물나니】로 되어 “니”이 곱잡되나

“물” (水)은 모 (나니) 앞에서는

【부나니】로 되어 “니”이 곱잡되며

“물” (水)은, 名詞 “소” (牛) 앞에서는

【물소】로 되어 “니”이 곱잡되나

“물” (水)은 명경모 “소” 앞에서는

【무소】로 되어 “니”이 곱잡된다.

또한 同一한 “물” 앞에도 불구하고 “물”

(不)에 “니, 비, 소, 오”의 부음을 가지나 “노” (怒) “법”

(法) “소” (少) “오” (與)가 각기 결합되면

不怒 (불노)

不法 (불법)

不少 (불소)

不與 (불오)

로 되어 “물” (水)에 “니, 비, 소, 오”와 부음을 가지나

“노, 비, 소, 오”가 각기 결합되

물노라 [부노라]

물비라 [부비라]

물소라 [부소라]

물오라 [부오라]

로 된다.

이상으로 각 용언 어간의 “니” 類大[니]은 다른 “오” 類大[오]와 同一하지 않아 (이점관적으로 보면, 설단정전파한음[교]이다)

로에 따라 부음이 되므로 (이하 “니” 類大[니]와 “오” 類大[오]의 형태부류 고정과 관련 “니” (水) — “오” (與)의 고저를 논 위 변격유언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모든 類大[니]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1)

【附】 비슷한 類大[니]의 비교

이제 類大[니]와 용언을 통하여 비슷한 어간 類大[니]의



대표적인 ㅈ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ㄷ, ㅌ, ㅊ, ㅍ, ㅍ						
例	表 記	發 音	表 記	發 音	表 記	發 音
남- (發)	남 파	[남 파]	남	어	[나 테]	
남- (個)	남 파	[남 파]	남	에	[나 테]	
남- (錄)	남 파	[남 파]	남	에	[나 테]	
남- (聲)	남 파	[남 파]	남	에	[나 테]	
남- (顔)	남 파	[남 파]	남	에	[나 테]	

ㅈ, ㅉ, ㅊ, ㅍ					
例	表 記	發 音	表 記	發 音	發 音
업- (負)	업 고	[업 고]	업	어	[어 버]
업- (福)	업 고	[업 고]	업	어	[어 버]
업- (無)	업 고	[업 고]	업	어	[업 서]
업- (可信)	업 고	[업 고]	업	어	[어 워]

ㄴ, ㄷ, ㄹ					
例	表 記	發 音	表 記	發 音	發 音
남- (慈)	남 고	[남 고]	남	아	[나 아]
남- (産)	남 고	[남 고]	남	아	[나 아]
남- (“드러“의 旗)	남 고	[남 고]	남	아	[나 사]
남- (出)	남 고	[남 고]	남	아	[나 아]

		ㄷ,		△,		ㄹ	
例	표記	發音	표記	發音	表記	發音	
물 - (埋)	물 고	[물고]	물 어	[무더]	물으니	[무드니]	
묻 - (問)	묻 고	[묻고]	묻 어	[무리]	묻으니	[무르니]	
물 - (咬)	물 고	[물고]	물 어	[무리]	물 니	[무 니]	

		ㅁ,		ㄹ	
例	表記	發音	表記	發音	
물 - (水)	물'가(辺)	[물 까]	물소 (水牛)	[물 소]	
물 - (咳)	물'가(의문) 로	[물 까]	물소 (명령) 로	[무 초]	
불 - (火)	불'가(辺)	[불 까]	불다닥(出火)	[불나니]	
불 - (吹)	불'간(의문) 로	[불 까]	불나니 (로)	[부나니]	
가 - (往)	가니	[가 니]	가고	[가 고]	
갈 - (耕)	갈니	[가 니]	갈고	[갈 고]	